

2000년까지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病院서비스 提高

1. 머리말

먼저 금번 본인을 초청하여 주시고, 大韓病院協會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인도네시아 병원협회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AHF Study Tour와 The 3rd Indonesian Hospital Congress의 테마를 「Toward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hospital services by the year 2000」로 선택한 것이 198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IHF Regional Conference의 테마이었던 「Hospitals Looking to the year 2000」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와같은 우리의 공동 관심사가 우리 AHF회원국의 협조와 노력으로 해결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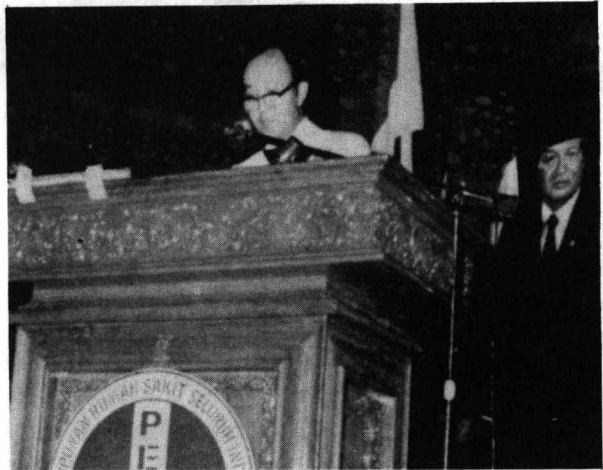
2000년대 까지 병원의 서비스를 더욱 효율화하고 효과를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본인은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주로 병원의 특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 병원조직의 특성과 관리

우리는 흔히 병원을 복합적인 사회-기술체계 (Complex Socio-Technical System)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병원에는 종사하는 人員의 職種 수가 많을 뿐만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위생재료 및 의료기기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일반적 특성 또한 다양 각색이라 할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다양

大韓病院協會 會長 白 樂 院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조직면에서도 규모가 비슷한 다른 일반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分業이 매우 多岐하며 역할과 기능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 부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드물고 여러 부서의 협동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결과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조직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이와같이 병원은 매우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가진 전문직 요원들의 협동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여기에 업무의 조정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 대할 수 없이 중요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병원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의 조직구조와 관리의 합리화에 全力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 병원의 효율성 提高

사람이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건강이나 의료 이외에도 衣, 食, 住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나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모두 갖고있는 사회는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간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율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의료활동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료원가의 절감, 진료의 적정화(QA) 및 경제적 진료방법의 채택 등을 위해 병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환자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

요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소속된 大韓病院協會가 주최한 바 있는 병원경영세미나의 주제가 「병원의 비용절감」이었는데 2일간의 토의 끝에 우리 참석자들은 『병원의료비의 절감은 병원의 어느 한부서나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병원의 협동적 노력없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병원 조직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4. 맺는말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은 국민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들에게는 진료능력을 質的, 量的으로 계속 확충하도록 조장하는 의료체제 内外의 여러가지 機轉과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투자효율만을 기준으로 진료능력을 확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은 환자에게 보다 良質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의 内實을 다져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大韓病院協會(KHA)는 1980년도 부터 병원표준화(Hospital Standardization) 사업을 시작하여 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진료보장」(QA)에 역점을 두고 한걸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사업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병원들이 앞으로 갖은 역경과 곤란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될 첩경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